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Myung Bo Um, Publisher

Yong M. Park, Editor

Phone: (206) 682-4252

#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 ※ 권 두 언
- ※ 송 년 사
- ※ 재 정 보 고
- ※ 공 지 사 항
- ※ 생 활 정 보
- ① 자녀교육
- ② 유망비즈니스 안내
- ③ 자동차 관리
- ④ 이달의 비즈니스  
(주유소)
- ⑤ 은행용자를 얻으려면
- ⑥ 82년도 세금보고
- ※ 한인업소 안내

12  
*December*

# 김종구 회계사무소

공인세무사

- ※ 장부정리
- ※ 개인인컴
- ※ 신속정확한 서비스
- ※ 절대 비밀 보장
- ※ 재무 상담 환영

13051 37th Ave. NE Seattle, WA 362 - 8370  
367 - 0655

## 노명건 사업체 전문부동산

사업체를 사실때나 파실때는 사업체 전문  
부동산 회사로 연락하여 주세요  
사업체 투자 상담에는 물론 성심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습니다.

VR BUSINESS BROKERS 774 - 5200

1 - 568 - 5551 ( 낮 ) 1 - 337 - 2480 ( 밤 )

## 권두언

###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용기

신념은 인간의 삶에 있어 지주와 같은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결같이 그들은 어떠한 일에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임에 놀랄 것이다. 남들이 아무리 혹평하고 어리석다고 비웃어도 그런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일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 마침내 어떤 훌륭한 일을 해내야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념은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굳은 신념이라도 침묵으로써 가슴속에 품고만 있으면 아무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신념에는 이를 밀고 나갈 똑심 즉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자기가 목표한바그 어떤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하한 대상을 치루더라도, 죽음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자신의 신념을 발표하고 실행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신념을 잃고 명예가 사라질때 그 인간은 죽은 것이다. 신념은 정신의 소산이다. 신념은 지구를 뒤흔드는 강력한 폭발력이다. 신념은 또한 마력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일이든 지 된다고 믿으면 그 것은 반드시 되는 것이다. 라틴어의 옛격언에 (가진다고 믿어라 그러면 가질 것이다) 란 말이 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일을 당하였을때 쉽게 좌절하고 낙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와 고난의 쓴잔을 맛보게된다. 영국의 유명한 A. 케논 박사의 마음의 개념에 관한 저술은 세계적 논쟁의 초점이 된것인데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굳게는 다리를 다시 만들어 낼수있으니 사람도 잃어버린 다리가 또 생기지않을 리 없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런것은 불가능이라고 제멋대로 체념하기때문에 안 생기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떼어버리면 다리도 생겨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것이니 이는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생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한 신념을 가질것이 필요하다. 모순된 여러관념에 사로잡혀 지배되어서는 안된다. 현대인의 하나의 습성은 합리적인 것을 상식적이라고 배격하는 경향이 있는데 합리적인 생활이 사회와 자기를 조화시키는 길이며 또 이조화를 벗어나서는 행복이란 얻기 어려운 것이다. 아무리 여러사람의 반대가 있어도 양심에 옳다고 느껴지거든 단연코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남이 반대한다고 자기의 신념을 꺾지말라! 옛날 국민학교 국어책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내용이 대충 어렴풋이 떠오른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데리고 시장을 가는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얼마쯤 가니 우물가 여인들이 어찌면 저럴수 있느냐? 어린자식을 걸리고 어른이 편안하게 갈수 있느냐? 하기에 얼른 아버지는 내려 아들을 나귀에 타게 하였다. 얼마쯤 가다보니 노인들이 쉬는 노인정 곁을 지나게되니 이번에는 노인들

**한인업소 이용하여 한인사회 육성하자**

<p><b>병원 · 한방원</b>                  엄도승산부인과                  Kent Medical Center inc P+S                  222 N.State .KentWA WA                  (206)872-3400 631-5863</p>	<p>홍인표박사                  신경 · 정신과전문의                  901 BorenAve                  Cabrinitower#707                  (206) 587-5747 587-3748</p>	<p>중국어의원                  605 So.Jackson St                  Seattle. WA 98104                  (206)628 - 0950                  한의사 유 환 복</p>
<p>로명재산부인과                  * 201 N.Division St                  Auburn .WA 98002                  (206)833-2580                  * 1711 324th PI                  Federal Way .WA 98003                  (206)927-8440</p>	<p>HOI W. LEE 치과                  1011 N.2nd St Renton                  (206)226-8151 226-4467</p>	<p>박약국                  8512-20th Ave N.E.                  Seattle WA. 98115                  (206)527-3020 3010</p>
<p>이창준 산부인과                  10109 Plaza Dr S.W.                  Tacoma WA. 98499                  (206)584-4355/4357</p>	<p>HAS AN APPOINTMENT WITH                  ROGER D. SOHN, D.D.S., P.S.                  110 D St S . E.                  A u Auburn.WA 98002                  (206) 833 - 3770</p>	<p><b>부동산</b>                  사업체 전문부동산 노명건                  사업체를 사실때나 파실때는사업체                  전문부동산 회사로 연락하여주세요.                  사업체 투자상담에는 물론 성심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습니다.                  VR BUSINESS BROKERS 774-5200                  1-568-5551(낮) 1-337-2480(밤)</p>
<p>오덕주산부인과                  23rd Ave S .W. &amp; Meridian So                  Puyallup WA 98371                  (206) 848-4453                  1624 So. "I" St                  Tacoma WA. 98405                  (206)627-0909</p>	<p>진한방원                  461 E. Hastings St.                  Vancouver B.C;                  Canada V6A 1P5                  (604)255-7033</p>	<p><b>채태용 부동산</b>                  *비즈니스 전문 Broker                  집 588-4343, 582-5990                  사무실 584-2700</p>
<p>박창식내과                  801 Broadway #912 Heath                  Prot Bldg                  (206)324-5867 827-4014</p>	<p>한성한방원                  11226 Bridgeport WaySW                  Tacoma WA                  (206) 582-9060 537-2068</p>	<p><b>오화실 부동산</b>                  주택전문                  455-9571 455-8370(사무실)</p>
<p>이영주치과                  10209 Bridgeport Way S.W.                  Tacoma WA 98499                  (206) 581-1412                  *Stevens Dental Cental                  20728-76th Ave W. Edmonds                  (206)775-3456</p>	<p>보혜사한방원                  8107-22th Ave S .W.                  Seattle WA. 98106                  (206)762-8566/5493</p>	<p><b>김현중 부동산</b>                  * 집없으면 집을 사시고                  집 있으면 집을 파세요.                  * 각종사업, 주택, 토지투자 상담                  774-7828, 774-3839</p>
<p>조병규치과                  * 215 N. 125th St                  Seattle WA                  (206)367-5570 776-8512                  * 1815. So. 324 th PI                  Federal Way                  (206) 838-3180(Seattle)                  927-4996(Tacoma)</p>	<p>제일한방원                  17421 . 30th .Dr S.E.                  Bothell. WA 98011                  483-8136 이명심</p>	<p><b>장국경 부동산 244-9114</b>                  Washington Realty는 모델매매,                  건축을전문.                  건축자금 융자도 5년까지                  해드립니다. 사실분, 파실분들                  연락바람 838-3324(집)</p>
	<p>동양한방원                  16715 Park Ave S.                  Spanaway                  (206) 537-9592</p>	
	<p><b>양장점 세탁</b>                  핑키양장점 프라자원아워크리너                  PINKY LRESS MAKING                  9741 Holman RD .N.W.                  Seattle.WA 98117                  784-1624 김재희</p>	<p>동서부동산                  EAST-WEST BROKERS                  8624 Pacific Ave # 12                  Tacoma . WA 98444                  537-3214 이상진</p>

**한인업소 이용하여 한인사회 육성하자**

<p><b>골동품 피아노</b>  <b>HO PARK ANTIQUES</b>                  Oriental Antiques Shop                  Importer &amp; Wholesale                  Oil Painting Portraits                  2018 2nd Ave. Seattle, WA 98121                  206-343-5577</p>	<p><b>간판 페인트</b>  <b>Kim's Art Sign &amp; Painting</b>                  * 미술간판, 실내장식(Bar, 식당)                  내부페인트 및 수리 곰보벽, 벽지                  878-1445(시애틀)                  474-4998(타코마)</p>	<p><b>건축및집수리</b>  <b>백광호 건축설계 사무소</b>                  13434 - 40th Avenue N.E.                  Seattle, Washington 98125                  (206) 365-2380</p>
<p><b>동양 골동품점</b>  <b>ORIENTAL GIFT SHOP</b>                  8817 Pacific Ave.                  Tacoma, WA 98444                  BUS: 535-6230                  RES: 531-9225</p>	<p><b>PARK'S SIGN 242-6801</b>                  미술간판, 한문, 한글, 영어                  오후3시~ 연락바람                  367-0123(낮) 525-7680</p>	<p><b>김스 종합건설</b>                  3825-191st S.W.,                  Lynnwood, WA 98036  <b>DAE J. KIM</b>                  Telephone (206) 771-8019</p>
<p><b>Oriental Antiques</b>                  한국골동품 도자기, 서화, 목기                  매매 및 감정                  14109 Aurora Ave. N.                  시애틀 367-2978</p>	<p><b>파리공예사</b>                  각종간판, 실내외 페인팅                  라이선스와 본드. 무료견적                  타코마 473-3819 시애틀 523-7057</p>	<p><b>ALOHA PACIFIC PLUMBING</b>                  변기 세면기 욕탕 부엌싱크                  수리 및                  363-5383(집) 362-6368(사무실)                  Aloha PP205QQ</p>
<p><b>세계피아노사</b>  <b>콜러 &amp; 켈볼 대리점</b>                  월부판매, 각종중고 그랜드 피아노                  365-5540(시애틀), 582-8753(타코마), 584-1545</p>	<p><b>SONG'S 페인팅</b>                  *내부 및 외부 *천장, 벽,                  도배(월페퍼) 무료견적                  곰보전문                  ☎525-7680, 546-1572</p>	<p><b>퀸스 랜드스케이핑</b>                  콘크리트, 펜스 잔디심기, 돌쌓기,                  공터메꾸기 및 불도져 작업                  정원손질일체 무료견적                  821-1960(집) 821-1178(bus)</p>

**교회안내**

<p><b>씨애틀 천주교회</b>                  성조지 성당                  매주일 오후 1시                  5306 13th Ave S Seattle 838-5924</p>	<p><b>타코마 천주교회</b>                  성 피터 &amp; 바오로 성당                  매주일 오전 10시15분                  Portland Ave &amp; 34th Tacoma 927-9533</p>
<p><b>에베렛 한인교회</b> 담임목사 고 필 균                  EVERETT OF KOREAN CHURCH                  1St Casino RD. EVERETT . WA 98204                  353~4143 예배시간 오후 1시 30분</p>	<p><b>씨애틀 한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 하 경                  KOREAN BAPTIST CHURCH                  1306 N . 165th St. Seattle .WA 98133                  542~4391 예배시간 : 오후 1시</p>
<p><b>한인 제일감리교회</b> 담임목사 이 창 수                  425 N.E. 95 th . Seattle.WA 98115                  367 ~ 2178                  예배시간 : 오후 1시</p>	<p>씨애틀 성은교회 담임목사 성 윤 경                  4401 2nd Ave N.E.                  Seattle. WA 98105                  예배시간 : 주일오후 1시</p>
<p><b>한국 벤틀 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 영 규                  BETHEL PRESBYTERIAN CHURCH                  OF KOREAN                  예배시간 오후 1시 546 ~ 5214                  19358 3rd Ave N.W. Seattle.WA 98177</p>	<p>씨애틀 제일장로교회                  11508 Rooseveltway N. E. Seattle.WA                  대예배 오전 11시 오후 7시 98125                  776 ~ 5749</p>

**교회안내**

<p><b>씨애틀 한인연합 감리교회</b> 담임목사 김중원                  ■ 주일예배 오전11시 ■ 교회학교 오전10시                  ■ 중고등부예배 오전10시30분 ■ 금요일예배 오후 7시30분 ☎226-7864, 632-5163 7시30                  1415 NE 43St. Seattle (워싱턴 대학 옆)</p>	<p><b>한인 연합 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영희                  ◆ 주일예배 오후1시 전도사 이석복                  ◆ 주일학교 오후1시 ◆ 한글학교 오후12시30분                  1315 N 160th St Seattle                  전화 교회 367-5858 집 774-1885</p>
<p><b>웨더럴 웨이 에덴장로교회</b>                  주일대예배 : 오후1시. 삼일기도회 : 오후7시                  주일학교 오후1시 매일새벽 : 오전5시반                  941-9684 839-6744 김성권 목사,                  1829 S 308th St. Federalway 임규영 전도사</p>	<p><b>렌튼 한인 교회</b> 담임목사 김경원                  ● 주일대예배 : 오전11시,                  ● 각구역예배 : 금요일 오후7시                  전화 : 226-2703                  교회위치 : 3031 NE 10th St Renton</p>
<p><b>씨애틀 한인 형제교회</b>                  ● 주일대예배 : 오후1시 ● 주일저녁찬양예배 : 7시 ● 수요일기도회 : 7시반 담임목사 최용걸                  7th &amp; Spring(시애틀 다운타운)                  365-6691 367-0183</p>	<p><b>타코마 한인 침례교회</b> 담임목사 문창선                  주일 : 성경공부 9시반, 낮예배11시, 밤예배7시                  수요일기도회 오후 7시, 토요일새벽기도 오전6시                  5602 112th St. SW Tacoma                  581-3144, 582-1829</p>
<p><b>성복음 성결교회</b> 담임목사 윤한두                  14537 30 th Ave N.E. Seattle WA 98115                   예배안내 오후 1시                  367-1490</p>	<p><b>한인 복음교회</b> 담임목사 이영준                  811 5th Columbia st Seattle WA 98101                  예배안내 오전 11시                  363-6789</p>
<p><b>타코마 한인 중앙교회</b> 담임목사 정남식                  · 주일예배 1부 : 10시, 2부 : 11시반 · 저녁예배 : 7시반                  · 주일새벽기도회 : 6시 · 주일학교 : 11시반 · 한글학교 : 주일10시 · 삼일기도회 : 7시반 · 영어교실 : 화, 목 오후6시반 9시반 3010 S. 66th, 472-9463, 475-4709(목사관)</p>	<p><b>한인 선교교회</b> 담임목사 송천호                  515 So 312 st Federal Way WA 98003                  예배안내 1부오전 9시 30분                  2부오후 12시 30분                  838-4599 922-1611</p>
<p><b>씨애틀 한인안식일 교회</b>                  안식일 대예배(토)안교9시반, 설교11시                  성경연구회(화)오후7시반, 담임목사 유재상                  금요일저녁예배 오후7시반 부목사 김준팔                  300 W Saar St Kent 854-1125, 8490</p>	<p><b>순복음 씨애틀 교회</b> 담임목사 박성수                  1632Broad way Ave P.o. Box 20305                  Seattle WA. 98102                  예배시간오후 1시 30분                  546-1612</p>
<p><b>씨애틀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구                  2728 N.E. 100th St                  Seattle WA. 98125                  예배시간 1부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367-4561 523-2728</p>	<p><b>씨애틀 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최태원                  1215 Thomas st Seattle WA. 98109                  예배시간 오후 1시                  242-0315</p>
<p><b>서부 영생 교회</b> 담임목사 한상국                  9252-16th Ave S·W Seattle WA. 98106                  예배시간 주일 아침 11시 주·수저녁 7시                  금요일기도회 8시                  목사관 767-0693</p>	<p><b>와싱턴 중앙교회</b> 담임목사 유의선                  601-9 th Ave. S·E Puyallup. WA. 98371                  예배시간 주일 1시 30분 수요일 7시 30분                  철야기도회 매월마지막 금요일 10시                  교회 927-4105 목사관 941-8170</p>
<p><b>씨애틀 중앙 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연발                  9421 18th Ave. S. W. Seattle WA. 98106                  예배시간 오후 1시                  763-8952</p>	<p><b>와싱턴 루터교회</b> 담임목사 박기영                  740 So 128 th st Seattle WA. 98168                  예배시간 오후 12시 30분                  752-9696 243-8555</p>

**이 규 영 계 리 사**

- ※ 컴퓨터로 장부정리
- ※ 일반 인컴 텍스
- ※ 중소기업 장부정리
- ※ 퇴직 연금 상담
- ※ 세무상담
- ※ 공증업무
- ※ 기밀 절대보장

**2809 4th Ave. Seattle**  
 623 - 4181 ~ 3



**MIDWAY UNION  
 SERVIC (GAS) STATION**

미드웨이  
 야외극장 스왓밋  
 건너편

※ 자동차 정비 일체

23845 Pacific Highway South  
 Kent WA 98031  
 전화 (206) 878-7500  
 (Across the Midway Drive-In)

※ 도요다 닛스 혼다 등 외국차 전문

2월 부터 새로운 Service 시작한 저의 Station 애용해 주시는 분께 감사  
 드립니다

성심껏 풍부한 경험의 기술진으로 책임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 박약국

약사 박정일 **시애틀·타코마** 최초의 한국인 약국  
(미국에서 약대 전과정 수료)

● 의사처방을 본약국으로 가져오시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영가로 신속하게 봉사해드립니다.

● 건강상담 환영 :

언어불편으로 의사와 상담이 불편하신분  
한국의 친자들이 편찮으셔서 고민하시는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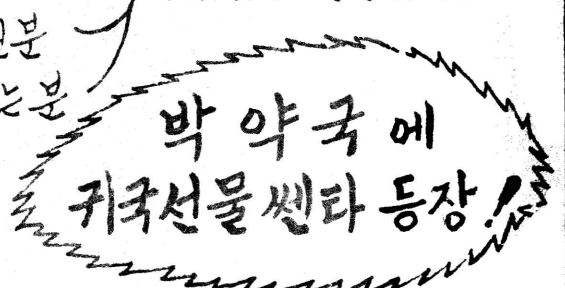
● 노인분들을 위한 메디칼 쿠폰 취급.

● 고국의 유명약, 중국약, 일본약 구비.

● 한국에서 인기 절정인 선인장쥬스 대리점.

● 희소식 : 체중조절 특효약 大 세일중!  
탈로방지 특효약

박약국과 상담하세요



☎ 527-3010

8512 20th NE Seattle WA

(그랜드 식품 내)

SEATTLE-WASHINGTON STATE

##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이 야단이다. 어디 저럴수 있느냐? 아버지는 견고 새파란 아들놈은 타고 가니 발같이 하는 농부걸을 지나게 되었다. 그것을 본 농부들은 또 가만히 있지않고 불평을 토한다. 저 사람들은 나귀가 불쌍하지도 않은가 실컷 부려먹고 저렇게혹 사할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둘이 나귀를 묶어 양쪽에서 들고가는데 다리를 건느게 되었다. 그 나귀는 밭에 흐르는 물을 보자 놀래 바둥거리다가 강물에 빠져 그만 나귀를 잃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은 이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하고 저사람이 말하면 저렇게 행동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는 신념이 그리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의 형편을 잘도 표현했다고 본다. 자아가 성숙된 사람은 신념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모든 위대한 것은 신념의 산물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어떤것인가? 그것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사내 대장부답게 꼳꼳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신념과 용기의 삶이 필요하다. 신념은 힘이다.

### 송년사

이제 한해도 거의 기울었습니다. 세밀은 목은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앙상해진 달력 앞에서 지나간 한해를 정리 하고, 새해 맞이의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모두의 마음이 바빠지는것도 그 때문인것입니다. 더구나 1982년은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하고 길었던 한해 이었던것 같습니다. 일년의 같은 기간이 길고, 짧음이 있을까마는, 순수한 봉사자라는 삶의 체험과 본인이 한인회장으로서 업무 수행이 무겁고, 고달팠던 탓인것 같습니다. 굳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먹일것도 없이 한인사회는 전례없는 어려움과 관심 그리고 전례없는 성원과 후유증을 안겨주는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불황으로 그만큼 고달픔이 컸다는것도 부인할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지난날의 일들을 되새기면서 똑같은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는 새해를 설계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인사회의 일이나 과가정의 어려움을 뜻하는것입니다.

참으로 "지난날의 일을 지난날의 일이라고 치워버린다면 미래마저 포기해 버리는것이 된다"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말이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한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할 우리들은 모든 분야의 일들을 꺼리낌 없이 돌아보는 가운데서 새해의 밝음은 열리라고 믿습니다. 그러자면 망년회의 모임들도 흥청거리림과 들뜸에서 벗어나야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불행과 고달픔의 체험들을 명심하고 새로운 분위기의 활력을 다지는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웃을 돌아보며 자선남비의 종소리를 생각 합시다. 이는 우리모두가 더불어 살아왔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깨우침을 거듭 확인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매년말에 열리는 "아리랑의밤"행사를 금년에는 취소 하였습니다. 외면적인 겉치레 치중하는 호화판 파티보다도 현실적인 불우이웃 돕기 행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인사회를 돌이켜볼때, 인간관계에 있어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 해지고 있음은 실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진리와 정의를 외면하며 신의를 저버리고 개인의 이익이나 지위에 급급하여 배신과 부조리를 따르는 행위등은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정당한 귀관성의 손리에 따른 자기의 소신이 없는 행위등을 자기 발전은 물론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하루속히 뇌우치고,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사회이고 발전 하려 면을 바른 비판을 수용할 자세가 필요 한것입니다. 개인의 인간관계에서도 잘못의 지적을 받아 들일수 있는 마음의 그릇 이 있어야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공관의 일부 영사들이 교포들간의 분열획책, 이민사회 간섭등의 부당성을 통해 이민사회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한편 이민사회의 우두머리로 군림 하려는 변칙적인 자세는 지극히 바람직 하지는 못한것입니다. 그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 생활비와 수당을 받는다는 기본적인 요소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해외에 파견된 영사들은 그 지역의 해외 동포들의 편익을 도모 하면서 민원업무와 봉사하는 공복이 중요한 임무라는것을 망각해서도 안됩니다. 또한 이민사회의 자율성을 저해 하는것은 비단 공관원 자질 문제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이곳 한인사회의 국소수 어용인사들의 몰지각성등이 상호 작용 한다는 사실도 분석 할수가 있는것입니다. 이런 일부 몰지각한 어용인사들만 정신 차린다면 깊은 "민족정기"의 의식을 갖고 처신 한다면 이민사회의 자율성과 단합된 민주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중요한 씨앗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사회의 공기인 언론 또한 사실과 진실된 보도를 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는 구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즘 한인사회에 나도는 유언비어도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말을 안 듣는다 해서 또는 진리를 주장한다고 "반정부 인사"이니 "용공분자"이니 또는 "불손 세력"이니 하는 터무니 없는 중상모략을 일삼는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방법에 의한 인신공격은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만을 초래 할 것입니다. 어느곳으로 부터인지 어느누구로 부터 생긴 유행어가 되었는데는 모르겠으나, 한인사회의 명량한 분외기조성을 위해, 이러한 어리석은 언행을 근절 시킵시다. 지난 한해에 일어났던 여러가지 어지러웠던 일들을 돌이켜보고 한마디로 세밀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올바른 새해를 맞이 해서 새로운 설계를 꾸밉시다. 속된 지위의 높고 낮음, 분야의 다름을 넘어서 우리모두가 지난해의 의미를 허심탄회하게 되짚고, 되풀이가 안되도록 노력 할 때는 세밀의 결단의에서만 새해는 의미있게 열릴 것입니다. 끝으로 가장 어려웠던 해에, 어느해 보다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교포여러분 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년간 같이 일을 하여 주신 본 회의 이사, 임원들께 뜻있는 봉사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새해에는 각 가정에 평화와 안정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1982년 12월 31일

씨애를 - 와싱턴주 한인 회장 엄 명 보 드 립.

1982년의 문턱을 나서면서.....

있을 법했던 첫눈은 오지 않은 채 1982년의 한해도 며칠을 남기지 못한 채 저물어 가는 듯싶다. 해마다 이맘때면 누구나 한번쯤 지나가는 한해를 돌이켜보며 결코 아쉬움 없는 후회와 반성으로 마음을 정리하며 닥아오는 새해에 희망을 건다. 다사단한 했던 한해, 어쩌면 이말이 적합할지도 모르겠다. 힘든 이민생활과 함께 모두의 마음들도 단혀 가는 듯한 느낌은 결코 우연만은 아닌 것 같아 씩씩한 마음이 자신을 억누르면서 새해에 건 자신의 희망을 조용히 읊미해 본다.

X . X . X .

뜻깊은 한해였다고 돌이켜 본다. 씨애를 - 와싱턴주 한인회가 발족 이래 최대의 발전효과(?)를 거두어 이 지역에 새로운 장을 열었으니 말이다. 년초부터 요란스럽게 지면을 장식하던 비판과 음모의 소리, 사실을 왜곡한 채 거짓선전과 책동으로 한동안 교민사회의 화쟁거리가 되었던 소위 어용 언론(?)이로 인한 교민사회의 분열과 갈등. 아무리 다수가 왜곡하고 거짓을 진실인 채 주장하여도, 결코 진실이 거짓이 될수 없는 이치는 흰색이 곧 검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시해야 할 점은 흰색에 묻은 검정은 전부를 아니면 일부를 검게 할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거짓이란 사람들의 호기심을 강렬하게 자극시키는 미묘한 촉매제(?)인 까닭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해 본다. 내 자신 직접 간접으로 한인회에 관계하면서, 술한어려운 난관이 가로 놓여있는 가운데, 자신의 안일과 그 흔한 자기 입장을 외면한 채로 순수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한 현회장에게 한점의 미세한 바람조차 막아주지 못했던 점 같이 반성할 따름이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언제부터 인간의 피나는 투쟁의 역사가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판단은 각자가 다를지 모르지만 보는 눈과 양심의 눈 그 자체는 꼭 같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사실을 왜곡하고 남을 해 하고 음모의 잔을 들이키는 무리들의 양심또한 같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그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1982년 임시총회이라는 대단원의 막은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을 밝히게 되어 내려졌다. 많은 관심있고(?) 뜻있는 대다수의 교민들의 민의를 수렴한 채로 그동안의 난무했던 유언비어와 음모는 종식되어 졌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진실로 애국자는 누구이며 진실로 교민들의 권익옹호 및 편익을 도모코쳐 밤잠을 설쳐가며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않은 채로 동분서주 하였던 자 누구였던가? 한인회의 각종 행사나 협조를 외면해온 인사들이 하루아침에 애국자요. 자신들만이 교민들을 위한 봉사자라고 자처하면서 연일 대문짝만하게 일간지에다 요란스럽게 사실을 왜곡하였던 행위는 무엇으로 설명할수 있겠는가? 모두가 반성해야 할점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를 단죄하기 이전에 단죄받아야 할것은 바로 자신들속에 내재해있는 "이기심, 시기심 그리고 무관심" 그 자체인 것이다. 평소에 그 많았던 한인회의 각종 행사는 일부 교민들에 의해서 이루어 졌던 것이 현실이 었던만큼, 정기총회때의 예상밖의 대성황은 내 자신 많은 교민들의 관심에 대한 고마움과 반가움 그 자체로 점철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만에 하나 교민사회의 관심(?)도 없는 인사들의 어설픈 권력행사로 인하여 진실로 우리가 필요한 봉사자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가질지 모른다는 기우 또한 컸음도 사실이었다.

지나간 역사가 그러하였듯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적어도 한시기를 풍미했던 온갖 일들이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의 강물속에 휘말려 멀리멀리 흘러갔으며 또한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점차 희미해져갔고, 왔던 사람은 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새시대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흘러가고 그러한 역사의 수레바퀴 틈에서 인간들이 화합과 그리고 불행과 슬픔을 행복과 기쁨으로 승화시킬줄 알았듯이 우리또한, 지나간 일들이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적어도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서로가 한결음씩 양보하고 우리들의 미덕인 상부상조로 서로의 허물과 상처를 감싸준다면, 우리 교민사회도 새로운 장을 열수있으리라 확신하며, 또한,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온다는) 불변의 진리와같이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행복하고 축복받는 시기가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982년 12월 30일

편집부장 박 용 목

**알리는 말씀**

해마다 연말에 개최하는 총년 파티 "아리랑의 밤"을 금년에는 사정에 의해 취소 하였음을 알립니다. 11월 20일의 신임 회장단및 이사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후유증과 전례 없는 불경기로 인한 생활이 어려운 교포 가정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호화스러운 파티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웃돕기운동으로 사용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아리랑의 밤"을 취소하게 되었음을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2년 12월 20일

씨애를 주 한인회 회장 엄 명 보

**재정보고** ( 11/1 - 12/25/82 )

I. 수입 지부 (경칭 약)

가. 회 비

209.	김 정 부	15.00
210.	박 태 호	15.00
211.	장 부 관	15.00
212.	조 기 두	15.00
213.	배 동 환	10.00
214.	오 계 희	10.00
215.	임 용 근	15.00
216.	이 형 석	15.00
217.	함 명 덕	10.00
218.	정 수 복	10.00
219.	유 경 신	20.00
220.	김 준 소	10.00
221.	이 승 우	10.00
222.	Kwang S. Park	15.00
223.	Young k. Lee	15.00
224.	김 현 중	50.00
225.	이 운 수	15.00
226.	이 정 훈	10.00
227.	김 재 영	10.00
228.	남 정 수	10.00
229.	윤 기 선	10.00
230.	강 세 철	10.00
231.	윤 용 수	10.00
232.	이 문 재	10.00
233.	이 삼 량	15.00
234.	Ho c. Park	20.00
235.	11월 20일 82년 정기총회 현장수납본 (당일 회비 납부자명단은 지면관계로 생략합니다.)	

총 액 5,039.00

회비 수입합계 5,409.00

나. 기 부 금

1) 일반 기부금

없 음

2) 광고 기부금

보혜사 한약방	\$ 40.00
오로라 선물센터	60.00
University 자동차	100.00
동서여행사	50.00
Midway Union 76	60.00
꽃집 흘러워	30.00
이 점 테	60.00
테 화 각	25.00
왕궁식당	30.00

계 \$ 455.00

3) 83년도 한인회 회장단및 이사후보

등록금

엄 명 보 (회장단) 후보	\$ 500.00
신 호 범 (회장단) 후보	500.00
문 균 성 이사후보	200.00
엄 도 승 이사후보	200.00
이 동 립 이사후보	200.00
장 부 관 이사후보	200.00

계 \$ 1,800.00

기부금 합계(1+2+3) \$ 2,255.00

입금 총액 \$ 7,664.00



서울대학교재외국민교육원  
1983학년도 재외한국인 모국수학생 모집요강

1. 모집과정 및 모집인원

가. 고등학교 예비교육과정

- 1) 교육기간: 4월 1일 ~ 12월 15일
- 2) 모집인원: 약간명 (국비장학생 10명 포함)

나. 대학(대학원) 예비교육과정

- 1) 교육기간: 4월 1일 ~ 12월 15일
- 2) 모집인원: 180명 (국비장학생 50명 포함)

다. 단기교육과정

- 1) 교육기간: 전기 4월 1일 ~ 6월 30일  
후기 9월 1일 ~ 11월 30일
- 2) 모집인원: 전기 30명  
후기 30명

2. 모집대상

국내의 각급학교(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거나 국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고자 하는 재외한국인으로서 거주지 대한민국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응모자격

가. 고등학교 예비교육과정

재외국민으로서 9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대학(대학원) 예비교육과정

재외국민으로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재외국민으로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4. 전형방법 일자 및 장소

과정별	전형방법	전형일자	전형장소
예비교육과정	면접	1983.1.10	주재국공관
	서류전형	1983.2.1	서울대학교재외국민교육원
단기교육과정	(전기) 면접	1983.1.10	주재국공관
		1983.2.1	서울대학교재외국민교육원
	(후기) 면접	1983.6.10	주재국공관
		1983.7.1	서울대학교재외국민교육원

\* 학생면접은 전형일자에 재외공관장 책임하에 시행하고 면접 결과와 지원서류를 재외공관장은 문교부에 1983.1.31까지 제출해야 함.

단, 단기교육과정 후기는 1983.6.30까지 제출해야 함.

5. 지원서교부 및 접수

가.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1) 고등학교 예비교육과정

1982.12.1 ~ 1983.1.8

2) 대학(대학원) 예비교육과정

1982.12.1 ~ 1983.1.8

3) 단기교육과정

가) 전기 1982.12.1 ~ 1983.1.8

나) 후기 1983.5.2 ~ 1983.6.8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는 거주국 대한민국 공관장이 결정 공고함.

6. 제출서류

가. 모국수학지원서(소정양식) 2통

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 고등학교 예비교육과정 지원자

가) 중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통

# 주변환경에 민감한 청소년들

학부모들이 10대자녀배경 모르고서는 그들을 교육시키기는 대단히 어려워

(여자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는 얘기도 있지만 10대들에 마음은 더욱 외부적 환경에 자극되기 쉬운 연령층이다. 특히 10대들은 소위 사춘기(Adolecence)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할수 있다. 주변환경에 가장 민감한 시기에 접어든 세대이기때문에 이들은 가정환경을 비롯 학교 분위기 동료관계, 그리고 교제대상에 따라 변화가 무쌍한 시기를 맞는다. 10대들의 행동이 절도, 구타, 꾀단참여, 마약(Drug) 복용, 가출등에 할선행위로 나타났을때 이러한 현상들은 "청소년들이 못나서 이 모양이다" 라고 언뜻 생각할수 있겠으나 깊숙히 검토하고 진단해보면 청소년들의 비행은 학부모들의 문제에 직결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 일선 선도 관계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집약되고 있다. 행동결과를 원인 분석에 의해 검토해보면 부모들의 문제가 자녀들에게 전가된 경우가 대부분인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우리아이는 글렀어" 라고 한탄하는 부모들은 어른들 자신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자녀 할선인것을 의식하지못한 부모들도 상당수에 달한다는 얘기가. 이민 10대들은 우선 이중문화가 치관속에서 살고있다. 가정에서 보고듣는것과 집을떠나 학교나 미국사회에서 보고 듣는것이 너무나 판이하기때문에 가치관의 혼돈에 빠지기 쉬운 주변환경을 갖고있다. 학교에서 개인 존중의 민주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가정에 돌아오면 봉건주의적인 동시에 일방적 주입식 문화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된채 반항심만 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한인가정들이 적지않은것같다. 10대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채 어린애 취급을 받고 있는 환경이 지배적이라는 것도 사춘기에 접어든 10대들에게 반항으로 증명되고 있다. "내의견 내주장은 항상 묵살된다"고 불평한 17세의 C양의 항변 가운데는 부모의 말은 모두 불평이며 독선으로 생각한다는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1년째 마리화나를 피워왔다는 P군(18세)은 "학교에 가면 백인애들이며 흑인애들 할것 없이 절반 이상이 썰(매리화나를 한인학생들은 속어로 썰이라고 묘사)을 피우는데 그게 할선이나 비행이라고만 볼수없다"고 주장하면서 동료들의 압력(Peer pressure)에 어쩔수 없는 불가피한상황을 정당화 하기도 한다. 친구들의 영향이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P군은 이어 "한국어른들은 매리화나만 피우면 완전히 애들이 타락한걸로 보는데 실제로 어른 생각과 우리들 생각과너무 차이가 크다"면서 10대 환경의 압도적인 현실을 무조건 나무라는 것은 잔소리만 들린다면 오히려 어른들을 계몽시켜 달라고 대담하게 요청하는 학생도 발견했다. 매리화나 피우는것 자체로 할선이라고 보는 어른들의 의견이맞지않다는 10대의 주장이다. 16세의 J양은 "우리 아버지와, 엄마는 우리에게 영어를 배우면서도 큰소리만 친다"고 지적하면서 "자기들(부모를 가르켜 격하시킨 표현인듯)은 밤늦게 어딜 다니

## 나) 중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최종학년 1학기까지) 1통

## 2) 대학예비교육과정 지원자

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통

나)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최종학년 1학기까지) 1통

## 3) 대학원 예비교육과정 지원자

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통

나) 대학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통

다) 대학 전과정 성적증명서 1통

## 4) 대학 편입학 예비교육과정

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통

나)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다) 대학 수료증명서 1통

라) 대학 성적증명서 1통

## 5) 단기교육과정

\*위 가)항 모국수학 지원서만으로 족함

다. 거주국 거주자격을 밝힐 수 있는 증빙서류 1통

라. 각거주국 대한민국 공판장추천서(지원서 소정란)

## 8. 합격자통지

1983.2.20 까지 서울대학교 제외국민교육원에서 각 거주국 공판

장에게 통지하고 각 공판장은 2.25 까지 본인에게 통지함.

## 9. 기타

### 가. 국비장학금 지급

1) 입학후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수학기간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2) 대학 진학후에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소정의 국비장학금을 지급함.

3) 국내사범계 대학을 졸업한후 제외국민교육기관에 근무할자(복무의무연한 4년)에 대하여는 예비교육과정 기간과 대학재학중 장학금을 지급함.

면서 우리들 보고만 집에 있으라고 해서 우리형제들은 두번이나 가출했었다"고 숨김 없이 밝혔다. J양은 또 "엄마와 아빠는 일주일에 2-3번은 쌍소리를 하며 때리고 던지는 화이팅(싸움)을 하면서 우리들이 야규(논쟁)하면 큰소리를 뽀지르며 신경질을 부린다"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묘사했다. 부모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자녀들에게 큰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이다. 경찰에 체포되어 부모들에게 돌아간 K군은 "내가언제 도둑질을 가르켰느냐"며 발길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우리 아버지는 적(Enemy) "이라고 까지 묘사한 17세의 청소년은 "학교가 끝나면 애들하고 돌아다니는 게 가장 즐겁고 재미있다"고 고백한다. 때리고 위협하면 할수록 10대들은 더욱 할선으로 향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인 것 같다. 사춘기의 10대들에 비친 부모들은 못마땅한 존재로 여기는 것 같다. 청소년들은 부모들간의 대화 단절로 같은 또래와 어울리며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자아상(New Identity)을 추구하려는 욕

망으로 가득차 있는 (특수한 층의 문화)에 호기심을 보인다. 백화점에와 브라우스를 사간 소녀(15-16세로 보임)는 점원에게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걸 좋아하면 다른걸로 바꾸러 올게요"라고 말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부모를 불신한 10대 자녀들이 갖는 공통적인 반항의 한 단면을 설명해준 예라고 볼수있다. 주변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10대들은 부모들의 지혜로운 처신이나 자대한 관심없이 는 쉽게 할선하는 특수한 계층이 바로 청소년 인것같다. 아무리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10대들을 예비지식없이 일방적으로 다루게 되면 오히려 크게 반대방향으로 몰고 갈수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학부모들이 10대 자녀들의 주변환경(학교 생활, 동료관계, 방과후 활동, 미국 사회제도의 이해등)을 제대로 파악하지못하면 사춘기의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데 단히 어렵다는 것이 이번호의 중요한 주제라고 강조 한다.

### 생활정보

## 유망 비즈니스 가이드

1. 사업에 특징: 간단한 아이템  
 무엇보다 이 비즈니스의 특징이자 장점은 아이템이 간단한 것이다. 도오넛의 종류야 60가지정도 되지만 도오넛에 칠하는 Icing이나 도오넛안에 넣는 과일 젤리Filling이 조금씩 다를뿐 기본은 대동소이하다. 그밖에 머핀(Muffin) 쿠키도 구어낸다. 드링크로는 커피가 주된 종목이고 소다 종류도 취급한다. 따라서 재료구입도 밀가루, 설탕, 기름, 데코레이션 용, 속(Filling) 등 비교적 간단하다. 자주 사다 날라야 할필요가 없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들어오면 되니까 시간의 소모가 적다. 특히 재료구입은 던킨·도오넛가게 주인들이 DCP (Distributor Commitment Program)에 의해 6개월에 한번씩 각 종목별로, 즉 밀가루, 설탕 등 입찰을 받아 공동 구매하기 때문에 시중 도매가 보다는 훨씬싸고, 또 계약가가 정해져서 6개월 간은 가격 변동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 사업의 다른 특징으로 말하면, 손님이 도오넛을 사고자 가게에 들어오기 때문에, 고객을 유치하고자 애를 쓴다든가, 흥정을 걸어야하는등의 어려움이 없다. 구경만 하러오는 사람도 없고, 또 왔다가 그냥나가는 사람도 없으니 알찬 장사라고 할수있다.

던킨·도오넛 가게를 열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두가지 종류의 가게가 있다는 것을알 필요가 있다. 첫째는 Self Development 의 스토아인데 개인이 건물을 짓거나, 사거나, 빌려서 가게를 준비하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 자신의 가게이다. 내부는 던킨·도오넛 회사의 규정대로 꾸미야하고, 기구등도 회사의 표준에 맞추어장만해야 한다. 이 경우에 들어가는 자본금은 2만 7천불의 loyalty, 기구 (Equipment)가 7만 5천불, 건축 내장비(던킨·도오넛 기준에 따른)14만불-17만불 정도,교육비(Dunkin Donut University에서 받는)와 보안 장치 등 기타운영 자금으로 2만불해서 총 26만-27만불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찰이 그만큼 필요한것은 아니고, 그중 3분의 1, 그러니까 9만불 정도 있으면 나머지는 회사에서 대부를 해준다.

둘째는 Company Development 인데 이때는 프랜차이즈 Loyalty가 3만 2천불, 기구(Equipment)7만 5천불이 들고 건물은 던킨·도오넛 회사에서 짓거나 내부수리를 해준다. 그대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그 공사비의 14%를 부담시키는데, 여기에 덧붙여 매달의 렌트가 가산되어 기본렌트가 되고 이것을 포함하여 매상의 12%개 회사로 들어가게된다. 이 경우엔 일률적으로 액수를 정할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5만 5천불 정도면 된다. 일단 자본금이 준비되었으면 던킨·도오넛 회사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2. 스토어의 두 종류와 그에 따라 자본 규모

## 보혜사 한방원

保 惠 師 漢 方 院

● 보약 ● 녹용 ● 우황청심환 ● 첩약

- 사단법인 대한침구사협회원
- 대한침구사 협회장 표창장 수령
- 미국가주 침술사 면허소지

762-8566 762-6493

영업시간: 당분간 평일은 오후5시~9시까지  
 토요일은 아침9시~오후9시

8107-22nd Ave. S.W.  
 Seattle 98108

## 치 질

치질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희소식!!

수십년된 치질도 아프지 않게 치료됩니다.

전화예약 바랍니다.

보혜사 한방원 최창하  
 762-8566 762-6493

데 이제 어느정도 한국인들이 크레딧을 쌓았기때문에 전에 비하여 한결 수월해졌다. 인가를 받기위해 크레딧 조사가 있으나, 만약 경영이 부실하여 납금이 잘 안되면 회사에서 가게를 인수해 버리니까 항상 엄두에 두어야 할일이다.

프랜차이즈·피 (Franchise Fee)는 매주 회사에 납부하게 되는데 첫해는 매상의 4.5%, 1년 뒤에는 4.9%이고 또 광고비로 4%를 낸다.

각자가 장소를 정하고 자할때 던킨·도넛 회사에서 추천하는 기본적인 Property Screening의 8가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3. 장소선정과 기타 준비과정:

교통이 번잡한곳이 유리

DDU

1. Quality Area ; 장사가 될만한 장소로 쇼핑·센타, 병원, 극장, 대학부근은 좋은 자리이다.

2. Population ; 5마일 이내에 3만명 정도 살고있으면 승산이 서는곳이다.

3. Traffic ; 하루에 자동차 2만대 이상 다니는 교통이 번잡한곳이 좋다.

4. Building Visibility ; 건물이 눈에 잘 띄어야 한다.

5. Sign Visibility ; 간판이 눈에 잘 띌수 있어야 한다.

6. Ingress & Egress ; 자동차의 출입이 용이 한곳이 좋다.

7. Parking ; 15대 정도는 파킹할수 있어야 된다.

8. Zoned for Commercial ; 상업지구

이상의 8가지 포인트는 비단 던킨·도넛 가게 뿐아니라 다른 업종의 가게를 열고 자할때도 좋은 참고가 될듯.

일단 장소가 정해지면 내장을 하게되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카운터며 도넛 낱두는 선반등 일체 던킨·도넛의 기준에 따라 해주니까 별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장비(Equipment)로 말하면 도오믹서, 프리저프라이어 등은 물론이고 금고에서 심지어 재떨이까지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리스트에 가격까지 나와있어서 주문만 하면 배달되니까 본인이 직접구하고 자 떠어 다니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던킨·도넛의 품질에 관계되지않는 비품등은 본인이 직접 사면 좀 경비가 절감되는 경우도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준비단계로 보스턴에있는 Dunkin Donut University에 가서 6주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의 2주간은 메니제먼트, 4주간은 베이킹(Baking)에 관한것이다.

### 4. 가게운영에 실제:종업원을 잘 다루어야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을때 깨끗하고 생기가도는 느낌을 받을수 있게 하자면 주인이 종업원을 잘다루어야 한다. 책임감있게 행동하도록하고, 특히 젊은 여자애들인만큼 그들의 기분을 어느정도 맞춰줄필요도있다. 그리고 물건이 좋아야 한다.

도오넛에는 방부제가 안들어가는 만큼 항상 프레쉬한것을 손님에게 서브하자면 하루에 네번 만들어야 한다. 도오넛 만드는법은 정해진 레시피가 있으니까 별 어려움이 없다. 일단 베이커에게 기술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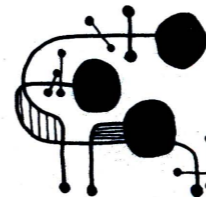
르켜 전달시키는데 믹서의 온도, 물의 온도 이 세가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주인으로서 늘 엄두에 두고 있어야 할것이다. 친절환 서비스, 깨끗한 주위환경은 세심 언급할 필요도 없을듯.

### 5. 수익성: 20% 내지 25%

수익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계절에따라 지역에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야기 했을때 총 매상의 24%가 렌트, 프랜차이즈, 보험료 등으로 나간다. 10%가 유지비 (Maintenance), 나머지 20%가 순 이익이 된다.

그런데 던킨·도넛 본사에서 각 지역에 따라 수지의 균형점, 소위 말하는이븐 포인트(Even Point)의 매상액을 가르쳐주는데 그것으로 부러 올라 갈수록순수익은 증가한다. 즉 매상이 많아진다고 해서 재료비, 유지비, 렌트등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계절에 따라 매상은 차이가 나는데, 여름철에는 수요가 적고 찬바람이 불기시작하면 매상이 많이 오른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흔히 하루매상에 따라 일희일비 하기 쉽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한달, 일년 매상에는 큰 차이가 없으니 너무 신경 과민이필요가 없다는경험자의 말. 또 던킨·도넛은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인 광고 덕분에인지 꾸준히 매상이 상승일로에 있다.

도오넛과 커피한잔이 미국인의 간단한 아침이나 간식으로 견제하는한 그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 자동차 수명 연장요령

자동차는 매우 편리한 것이지만 잘 간수하지 않으면 굴치거리가 되기도한다. 자동차 전문가에 의하면 소유주의 손질 여하에 따라 자동차의 수명이 다 하도록 별 말썽없이 잘쓸수있다고 한다.

자동차 전문가 밥·펜델(Bob Fendell)의 저서 (자동차 수명을 연장하는법)에는 차를 바르게 씻는다는,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작업에서 부러 작동부분의 소모를 줄인다는지 차 내부를 쇼우룸에 있는 상태처럼 깨끗이 손질하는 어드바이스까지 다양한데, 그 중 몇가지를 골라본다.

레이디에어러엔 물보다 에틸렌·글리콜

• 당신의 드라이브 스타일이 차의 수명에 관계된다. 가장 나쁜 습관은 차를 스타트 하자마자 몰아가는것, 부레이크나 쿨러치를 풀지않고 달리는것, 우선 커브에 부딪쳐 보고 감을 잡아 파킹하는 것, 다른 차와 경쟁하는 것, 화가났을때 드라이브 하는것 등이다.

• 3,000마일마다 또는 계절마다 오일체인지를 해야한다. 또 기후에 따라 알맞는 무게의 오일을 골라야 한다.

• 여름과겨울에 각 한번씩 레이디에어러를 글리콜(Ethylene Glycol)을 쓸것을권한다. 이 용액은 녹을 방지해줄뿐아니라 몹시덥거나 추운 날씨에 보통 물보다 더 작동을 잘하게 한다.

• 부레이크 액(Brake Fluid)을 매달 체크하

고 더러워졌거나 에어버블로 오염되었으면 깨끗이 씻어낼것. 그리고 자동흡니바퀴에 기름을 잘 치고 매달 체크를 해야 한다.

• 필터(Filter)도 각종 용액(Fluid)만큼이나 중요하다. 오일 필터는 9,000마일마다 바꿔 주어야 한다. 에어 필터는 3,000마일마다 깨끗이 청소하고 매달 갈아 주어야 한다. 트랜스미션 필터도 매 9,000마일마다 검사를 하고 깨끗이 해주어야 한다. 또 에미션 필터는(Emission Filter) 6,000마일마다 검사해서 깨끗이 청소해 주고, 15,000마일마다 교체해줘야 한다.

• 현재 당신이 갖고있는 차를 계속해서 실행하면 새로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의자 카버를 다시 씌우고, 기타 각 부분에 검사 수리를 해서 리모델(Remodel)할 계획을 세워 볼것.

• 후드, 트렁크, 도어 등이 잘 맞는지를 살펴서 바디를 철저히 점검해 볼것.

• 찌그러진 곳, 긁힌 곳, 녹슨 곳 등 페인트칠이 필요한것을 체크하라. 바디수리와 페인트의 견적을 내어볼것. 그런데 펜더(Fender)나 다른 부품을 경크 야드에 찾으면 훨씬 값싸게 먹힌다.

• 차대 버림장치를 체크해 보자면 바운스 테스트(Bounce Test)를 해 볼것. 펜더를 가능한한 세게 눌렀을때 차 코너가 한번 이상 오르내리지 않아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새 쇼크 어브서버(Shok Absorber)가 필요하다.

• 넓은 공지에서 휠 어라인먼트를 테스트해 볼수있다. 15-20mph로 가다가 운전대를 놓고 워셀레이터는 계속 같은 정도 밟는다. 차가 좌측으로나 우측으로 돌아가면 바퀴가 잘 정렬되어 있지않다고 보겠다.

• 후드를 들어, 금이 가거나 헐어빠진호스, 또는 레이디에이러에 흰점이 있나를 체크해 볼것, 블락에 젖은 오일이 있거나 오일석,인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으면 즉시 차 수리점에 가 봐야 한다.

계절마다 오일 체인지 해야

• 휠·카바를 벗겨서 휠에 뚜렷하게 검은 스테인이 있나 살펴보자. 만약 그런 얼룩이 있으면 브레이크 시스템에 새는곳이 있다고 여겨진다.

• 카펫이나 시트 카바를 바꾸기로 결정하기 전에 먼저 내부를 깨끗이 청소해 놓고 볼것.

• 상당한 부분에 녹이 스렸으면 차를 바꾸는게 낫다.

• 새 차를 살때에는 돈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시트는 고급품으로 푸엘 탱크(Fuel Tank)는 큰것으로 범퍼(Bumper) 안전장치, 차대버림장치등은 보다 좋은것으로 장만하는것을 고려해 보자.

• 차를 잘 부딪는 편이면 수리비가 비싼싱글 유니트 바디 보다는 프레임 앤드 바디 모델을 고르는게 낫다.

• 차를 산 첫날부터 잘보호해야 한다. 러스트 퍼퍼레이션(Rust Perforation Warranty)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만큼, 딜러업션으로 추가로 녹방지에 대한것을받아 내거나 차를 산뒤 녹이 안쓸도록 하는 보강 조치를 하는 것이 안심스럽다.

• 딜러로부터 페인트 보호에대한 보증을 얻어 낼것 그러면 딜러는 차를 더 잘 손질해서 내줄것이고 결국 페인트 문제에 있어 이중의 보호를 받는 셈이 된다.

• 카펫트 위에 매트(Mat) 스파크, 플러그보호 카바 휠오프닝 가드는 사는게 유리 하다

• 테스트 라이드를 한다음에 딜러가 말하는 약속을 그대로 받아 들이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대로 차가 완전한 컨디션이 되지않으

면 서둘러 가져올 필요가 없다.

• 차를 잘 씻어주어야 수명이 연장 된다. 여름보다 겨울에 더 자주 씻어야 하는데 길에 뿌린 소금길을 바디로 부터 씻어주어야 하는 까닭이다.

• 정전 작용으로 먼지가 붙는것을 없애려면 차 세척액(Car Washing Solution)을 사용 하는게 좋다. 물기를 말리기 위해 스펀지나 세무를 쓸것.

• 왁스나 중합체의 코트를 입히는것도 차체의 녹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왁스는 매달 입혀야 한다.

• 진공소재기로 차 내를 매주 청소할것. 트렁크도 빠트리지만 시트 카바도 그재료에 따라 적절한 각종 클리너로 청소하고 더러움이 덜하게 하기의하여 소일 프루프스 스프레이(Soil Proof Spray)를 입힌다.

• 차내 크롬을 잘 닦고 빠진 나사못이나, 느슨한 핸들, 손잡이들을 잘 조인다.

• 만약당신이 기계 만지기를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면 믿을만한 수리공이나 정비소와 관계를 잘 맺어 놓을 것. 이상이 생기면 곳 가져 가는게 좋다.

이영주 치과

타코마 지역

시애틀 지역

진료일시 : 화, 목, 토(아침9시~6시)  
진료장소 : Sun Plaza Suite #10  
10209 Bridgeport Way SW  
Tacoma, 98499

진료일시 : 월, 금(아침9시~6시)  
수(낮12시~저녁9시)  
진료장소 : Stevens Dental Center  
20728 - 76th Ave W.  
Edmonds, 98020

581-1412

775-3456

습득물 안내

지난 11월 20일 한인회 정기총회 현장에서 습득물을 아래와같이 본회에 보관하고 있어오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용 : 1.메트로 버스 승차카드1매  
2.여자용 장갑

연락처 전화 : 682-4252

씨에를 와싱턴주 한인회 총무부

정정 안내

1. 지난 8월호 회보에 선거관리 위원장의 손 학봉씨를 손옥봉씨로 정정합니다. 죄송 합니다.

2. 8월호 회보에 게재된 노 명건씨의 \$ 30.00 기부금은 \$ 50.00이었음을 정정 합니다.



- 결혼 약혼식꽃
- 실내용 화초
- 각종 축하용 화분
- 장례식 꽃등



— 교포에게 특별봉사 —

전화만 주시면 즉시배달해 드립니다

4222 EAST MADISON SEATTLE, WA 98112

BUS 325 5032 RES :367 1534

# 주유소

## 안정된 생활보장

### 현금 관리에 조심을

주유소는 야제가게, 생선가게, 식품점, 잡화상점 등과 같이 자금회전이 빠르다는 점에서 많은 교포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서비스 업종에 하나이다. 특히 요즘에 와서는 미국인들이 경영해오던 기존 업체들이 서서히 동양인들에게 이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문 지식과 큰 자본을 들이지 않더라도 운영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갖고 시작한다면 짝짤한 재미를 볼 수 있다는 게 기존 교포업자들간의 이야기이다.

이런 추세에 따라 주유소에 대한 교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매매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가을을 앞두고 앞으로 주유소업에 대한 사업 전망은 어떠할지 그 투자 요령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사업방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 1. 주유소업의 특징

주유소는 원래 통행차량에 필요로 하는 연료인 Gas를 일정장소에 저장해놓고 최종 소비자에게 분배하는 유통과정상의 서비스 업종이지만 때로는 repair store 및 Garage(차고)를 겸하고 있으며 좀더 큰 규모를 갖게되면 자동차 정비업소까지 갖춘 곳도 있다. 따라서 그 규모와 업체의 성취에 따라 투자규모와 운영상의 문제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새로 시작해 보려는 교포들에게는 소자본으로도 경영이 가능하며 전문 지식

#### 2. 사업 전망

주유소의 사업전망은 한마디로 밝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업종의 필수구인 차량이 미국내에만 약 1억대가 산재해 있고, 문명사회가 더욱 발전함에 따라 에너지 수요증가는 필수적인 것이다. 특히 요즘같은 불경기 속에서도 석유관련 업체들은 계속 자본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 현상을 보면 주유소의 사업지속성은 필연적이며 앞에도 말했듯이 지금까지 주유소를 경영해오던 미국인들이 펌핑맨 등 노동인력의 부족으로 경영이 어려워 지자 동양인들에게 운영권을 넘기는 추세이므로 신규투자의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다.

#### 3. 신규 투자 요령

주유소를 새로운 비즈니스로서 투자할 때는 우선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 대상업체에 대한 사전 평가를 정확히 한후 매매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요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은 주유소 선정에 있어 최우선 순위로 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주유소란 통행차량의 수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 되기 때문이다.

주로 도시중심 지역에서는 30분내외 거리이면서 출퇴근 길이거나 High way 또는 도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중앙도로변이 가장 좋고 출퇴근 지역에서는 출근길보다 퇴근길

쪽이 훨씬 유리하다. 그 밖에 지방에서 도시로 들어가는 외곽지역과 High way가 교차하는 지점등을 들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같은 동행선 사이에 전후방 지역으로 최소한 1시간 지역내에 타 주유소가 소재되지 않은 곳이라야 한다.

##### • 임대 기간

주유소는 모든 재산과 권리가 개인의 소유로 된 Individual station과 반대로 모든 재산과 권리가 석유회사에 소속된 Company station으로 구분된다.

Individual station의 경우에는 상호를 석유회사 명칭으로 사용하면서 Gas공급 계약만 맺고 있으므로 임대기간의 한정은 없으나 사업주가 원래의 주인이 아닐 경우에는 주인과의 계약조건을 확인하여야 되고 원주인과 직접 임대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쌍방간에 결정하기 달렸다. Company station의 경우에는 주유소에 대한 모든 재산과 권리를 석유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와 석유회사간의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책임대를 사용 계약을 맺을 때는 앞으로 남은 기간과 임대기간 만료시 석유회사로부터 재계약이 가능한가를 미리 알아야 한다. 대부분 Company station이 많은편이며 이 경우에는 모든 운영사항(시설 설비, Gas 매입, 판매)이 본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영업 실적

주유소를 매입할 때는 전 소유주(또는 임대자)의 영업실적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뉴욕 일원을 중심으로 보면 월간 Gas 판매량이 15만 갤론이면 A급, 10만 갤론 이상이면 B급, 5-10만 갤론이면 C급, 5만 갤론 이하인 D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초보자로서 적은 자본을 갖

고 시작하려면 C급 정도면 무난하다. 그러나 D급 이하일 경우에는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충분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 • 가격 조건

주유소 매매가격은 임대 종류와 함께 repair store 및 Garage 시설 유무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Individual의 경우 10만 달러(일반주유소)에서 2십만 달러(repair store 겸업 주유소), Company station의 경우 3만 달러(일반주유소)에서 10만(repair 겸업 주유소) 정도의 투자가 소요된다.

#### 4. 기존업체가 말하는 운영방법

정비업소까지 겸하고 있는 주유소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되므로 여기에서는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반주유소의 경우만 소개한다.

##### • 직원 관리

주유소 경영에서 제일 먼저 애로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인력 확보이다. 물론 아직도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있는 교포 사회가 있기는 하지만 주유소 대부분이 주거 지역에서 벗어나 있는데다가 자체가 직원으로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직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고 신원이 확실치 않을 경우 현금 도난 및 사고의 우려도 있다. 경영주는 항상 직원의 건강상태 및 가정생활 상태에 관심을 보여 주고 독신자의 경우 가족사 시설을 제공해 준다면 안정된 근무를 할 수 있다.

##### • 단골손님 확보

단골손님의 확보는 안정된 사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 궤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주유소보다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유하는 동안 오일을 점검해 준다든지 유리창을 닦아주는

것은 잊지 않는다면 이 조그만 서비스에  
도 고객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 현금 관리 철저

판매금액에 대한 현금관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타 업종보다 강도, 절  
도등 강력범이 많이 침투할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현금관리를 소홀히할 경우 금전  
적손해는 물론 인명 까지 위협받는 사례  
가 야기될수 있다.

• 사업분석 철저

대부분 고객상들은 모든것을 운에 맡긴

다는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  
다. 그러나 Gas 판매 가격 결정에 따  
라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면 매기간 마  
다 (시간별, 요일별, 월별, 기간별)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적절한 판매가격과 인  
원 배치등을 결정하는것이 중요하다.

• 주변환경 청결

화재의 위험이 항상 따르므로 주변을 항  
상 청결히 하여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  
고 또 고객에게도 깨끗한 분위기를 보여  
주어야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찾아 올 것  
이다.

# 은행 용자를 얻으려면

## 문답으로 풀어본

### 기본지식 이것저것

미국은행의 문턱도 높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 착실하게 크레  
딧을 쌓고, 금융의 메카니즘을 알고 나면 아  
무런 벽도 느껴지지 않는다.

미국에 와서 이민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당장 부닥치는 어려움중의 하나인 크레딧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낯선 나라라  
는 것을 실감케하는 하나의 벽으로 느껴진  
다. 미국에서는 경제활동의 중심이 은  
행인데, 은행에서는 늘 크레딧을 따진다.  
도대체 그게 귀찮아서 많은 고객들이 현금  
으로만 거래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면 미국에서 5년이 넘어도 크레딧이 없고,  
막상 집을 산다든가, 큰사업을 벌일때, 은  
행과 관련을 맺지 않을수 없는 경우 당황  
하게 된다. 그러나 크레딧이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굴치아픈 것은 아  
니다. 그 메카니즘을 알고 있으면 오  
히려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 되어, 당신이  
이땅에서 자리잡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 한국에서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현금없이  
집이든, 자동차든 은행에서 용자한 돈으  
로 살수있는 정도로 사회가 안정되어 있  
다고들 하지요. 그러나 사실 말처럼 그  
렇게 수월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 크레딧이 없으면 은행 문턱이 한국보다 더  
높다고 하는데, 도대체 크레딧이란 무엇일  
까요?     답 : 크레딧이란 흔히들 신용

이라고 말하는데, 은행에 입장으로는 우  
선 고객을 알아야 합니다. (We have  
to know the customer.) 친구끼리도 돈을  
빌려줄때 그 친구가 믿을만 한가? 돈을갚  
을 능력이 있나? 돈이 있어도 안 갚을 인  
간성은 아닌가? 등을 생각하게 되지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아주 안정된 (Stable) 사회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단  
기적, 장기적 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계획  
(financial plan)을 짜서 그에따라 살아가  
면 크레딧은 저절로 쌓여 갈것입니다.

-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처음  
이민와서 당장 자동차를 사야 하지 않습니  
까? 뉴욕의 경우는 대중 교통 수단이 편리  
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현금으로 몇천불  
주고 차를 사면 크레딧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렇다고 카.론 (Car Loan)을 신청하  
면 크레딧이 없다고 용자가 안 되지요.  
그런데 크레딧이 하루 아침에 쌓이는것도 아  
닌데 은행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요구하는것  
은 좀 무리한것 같습니다.

답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국에서 오래 사신 친지, 크  
레딧이 좋은 본의 Co-Sign을 받으면 되겠습  
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소위 연대 보증  
이지요. 그렇게 시작해서 꼬박꼬박 지불  
일시를 잘 지켜나가면 크레딧이 생기기 시  
작합니다.

- 그럼 좋은 크레딧을 쌓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 크레딧이란 흔히들 신용

SONY
RCA

## 아폴로 TV 개업안내





● 한국 비디오 테이프 대여

영업시간 : 아침 9시~저녁 9시  
일요일은 오후 2시부터

주 소 : 916 N. 160th St.  
Seattle, WA 98133

전 화 : 546-4222(씨애틀)  
531-6370(타코마)





# 한국 이름 英文 표기 발음보다 뜻 주의해야

중에 7년 전의 것은 들추지 못하도록 되어있지요. 파산에 경우에는 14년간 보고되도록 되어있고 또 만약 4만불 이상의 보험이나 용자를 신청했을때, 또 2만불 이상의 봉급을 받는 직장을 구할 때는 시간적인 제약없이 옛날 일까지 조사할수 있지요. 한가지 덧붙일것은 용자 (Loan) 한 것을 갚지않고 떼먹으면, 영구히 따라 다니는 크레딧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 용자의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으며, 대개 한도액은 얼마나 될까요?

답 : 용자받을수 있는 범위를 각 종류에 따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을니다.

- Personal Loan \$ 1,000 - \$25,000
- Auto Loan \$ 5,000 - \$20,000
- Mortgage Loan \$ 20,000 - \$100,000
- Home Improvement Loan \$15,000 - \$20,000
- Federal-State guaranteed \$ 2,500 (연간)
- Student Loan

- Check Loan \$ 500 - \$ 5,000
- Credit Card Loan \$ 500 - \$ 2,000

그 밖 에 일반 비지니스 관계 용자는 규모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케미칼 은행 플러싱 지점에서 \$10,000 - \$1,000,000 까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 비지니스하시는 교포들이 가장관심을 갖게되는 것은 소기업을 위한 Loan이겠는데, 그 관계를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 네. 그 용자 범위는 방금 말씀드렸읍니다만, 그 용자를 받을수 있는 자격은 대개 세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2년간 비지니스에 종사한 크레딧이 있고, Inventory가 있으며,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이 확실때. 둘째 용자를 해서 당장 돈이 들어온다는 것이 확실할때, 예를들면 용자한 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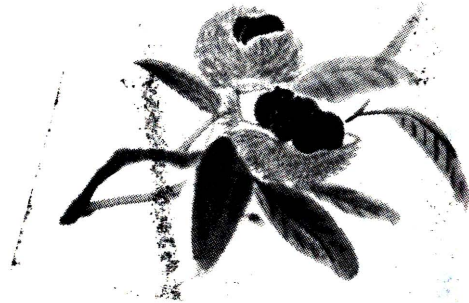
으로 물건을 사서 곧 팔릴수 있는 재산성이 있다든지 받을 돈이 많이 있을경우 (Account Receivable), 셋째 Business Equipment를 담보로 해서 용자를 하는 경우등 입니다.

● 담보 용자는 대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답 : 보통 담보물의 80% 까지 가능합니다. 담보물을 잡히고 용자하는 것은 가장흔하고 또 한국에서 부터 익숙한 방법일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행의 특징은 크레딧이 좋으면 담보가 없어도 용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봉급 생활하는 본인에게 가장큰 용자는 아마 집을 살때가 되겠는데, 그 Mortgage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할수 있을까요?

답 : 그 관계는 Savings Bank에서 주로 취급하지요. 그런데 대개 적용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기 쉽게 예를 들면 3만불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Cash down을 만 5천불정도 하고, \$65,000 - \$70,000까지 접까지 사면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Cash down은 일반적으로 25%까지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겠습니다.



십여년전 서울에서조선신문을 열심히읽던 어느날, 만물상인가 하는 난에다 음과같은 에피소드가 실려있었다. - 시내버스에서 한때의 여학생들이 어떠한 남학생을 보고 킁킁웃길때 왜그런가하고 그 남학생을 봤더니 고복가슴위에 한글로 (임신중)이란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 이외에도 (이상한) (공사중)같은 이름들도 열거되어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역시 한바탕 크게웃었지만 웃은후에내가 신기하다고 생각한 점은 위키이름을 한자로 써붙이고 다닐때나 선생님이 그 이름을 호명할때는 그다지 웃지않던 사람들이 왜한글로 표기된후에야 갑자기 웃기시작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학생이 태어나서 부모가 이름을 지을때 모르긴 몰라도 그부모는 돌림자나 한자의뜻을 먼저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글로 썼을때의 시각적인 느낌이나 발음했을때의 어감은 별로 주의하지않은듯 하다. 후자를 주의했다면 자기의 귀한 아들한테 놀림감이 될만한 이름은 절대로 지어주지 않았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묻고 싶은게 있다. 왜 그이름을 한글로 쓴것을 본후에야 그렇게 더우스운가? 소리는 같은데 말이다. 인간에게 문자는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는것일까? 하는 것이다. 그로부터 일이년쯤 후의일이다. 내게는 (송아무개)라는 친구가 있다. 내게는 그의이름이 여니 한국이름과 같이 습관이되어 있었다. 그런데 동양의 선의사상을 좋아하고 약간 히피스런 내미국친구가 송아무개의이름을 보더니 (정말 동양적인 서정이 깃든 멋있는 이름이다)라고 했다.

나는 뭐가 그리 멋있느냐고 하니 Song 즉 (노래)가 얼마나 동양적인 신비한 이름냐고 했다. 나는 비로소 (아하!)하고 몇년전에 읽은 에피소드 생각이 났다. 다시말해서 (송)이란 소리를 내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로마자를 통해서 본후에야 그때한국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다시 내경험으로 실감한것이다. 한글은 한국인의 얼에 배어있고 로마자는 나에게 배어있다. 즉 내가 한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부터 한국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되며 한국인 역시 로마자를 쓰기 시작하므로써 미국이란 세계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국사회에 들어갈때는 모르는것 후성이 이며 일종의 위험도 있다. 여기에 대한 내작은 경험이 또있다. 우리 어머니는 내이름 (Robert)를 애칭으로 (Rob)이라고 부르신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저는 Rob이라고 합니다) 하고 내자신을 소개하곤 했다. 그리고 어느날 내한국 친구에게 메모를쓰고 (밥)이라 싸인했다. 이것을 본친구는그때 몹시 웃었으며 그때부터 먹는 밥과 내이름을 연결시켜 나를 놀렸다. 갖 한글을 쓰기시작하고 한국사회에 들어가서 받은 첫 봉변이었다. 그러나 내 이 경험은 내가 아는 미국여자 친구의 경험에 비하면 약과다. 그 여자 이름은 Pam (Pamela의 애칭)인데 그 여자는 자기 이름을 한글로 발음하는 대로 (뽀)이라고 썼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여자의이름이 뽀이라니, 쫓! 쫓!)하는 반응이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할수없이 이름을 (뽀)으로 바꾸어 썼다. 그때 부터는 또 어떤 반응이 있었겠는가.

이런일은 비밀비재 하다. 그래도 서양 사람의 입장은 더 나은 편이다. 여기에 비하여 한국인은 아마 거의 모든분들이 로마자로 표기하는 영어 이름이 하나씩 있을 것이다. 그중 대부분은 최초로 로마자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자기 이름을 영어로 쓸지 자신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겠고 혹은 중학교 일학년때 영어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도 했으리라. 영어를 처음 배우는 분들이 어떻게 영어를 사용하는 그 사회의 말의 뉘앙스와 그 글자 하나하나가 주는 느낌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생각나는 예 몇가지를 들어 보겠다. (국)이란 성을 가진 사람은 별생각 없이 로마자로 (Kook)로 표기할 것이다. 혹시나 무슨 뜻이 있나하고 사전을 찾아보는 사람일지라도 보통 사전에는 없다. 은어 사전을 보면 (Kook)이란 (괴팍한 사람)과 (좋아할수 없는 사람)등의 뜻이 있는데 1958년도 부터 린.에이저들이 갑자기 사용하기 시작한 유행어 이므로 보통 한국 사회의 사람들은 이런 대중 문화를 모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이 (Kook)이란 이름을 본다면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픽웃을 것이다. 의사인 (닥터 콕)의 경우를보자. 그는 그의 성을 로마자로 (닥터 Quack)이라 쓴다. (닥터 Quack)이란 단어에는 (돌팔이 의사)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쯤되면 미국 사회에서 그의사의 인상은 엉망이 되지 않을수 없다. 한국에서 비교적 흔한 (문)이란 성을 보면 대부분이 Moon으로 표기하였다. 달은 둥그렇고, 원만하고 시적이고, 부드러운 느낌, 하여튼 좋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있게 Moon으로 표기할 것이다. 물론 Song (노래)이란 이름을 좋아했던 히피 친구도 있었다. (문)씨의 예를 들면 문선명씨는 이름속의 (Moon)과 (Sun)이라 표기한 단어때문에 1960년 대의 미국 젊은이

즉 동양의 선사상을 좋아하던 젊은 세대들에게 그의 이름은 더욱더 신비한 마력을 주었다. 태양과 달은 우주를 뜻하므로. 그러나 일반 미국인들은 이 이름을 보고 위의 젊은이들과는 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왜냐하면 옛날에 서양사람들은 미친 증세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 사람은 달빛속에서 달빛을 받고 춤을 추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믿었다. 증세시대의 미신중에도 사람이 보름달 빛을 받으면 이리로 변한다고 하는 말이 있다. 그만큼 보름달빛은 마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요즘에도 서양 사회에서는 미친증세를 (루너시)라고 한다. 라틴어로 (달)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미친 사람들을 학술어로 (루너틱) 즉 직역해서 (달빛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흉일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흉일교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무니스)라고 불렀다. 이것은 그냥 닉게임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을 비웃는 뜻으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이와같은 한국 이름의 로마자 표기가 미국 사회에서 엉뚱한 이미지를 주는 예는 수없이 많다. 한국이 자랑하는 음악가 XX옥씨는 이름은 XX Uck으로 신문지상에 난 것을 보았다. (Uck)은 미국사람들에게 역! 다시말하면 너무 싫음 어서 못참을때 혹은 구토증 나는 소리의 의성어이다. 음악가라로 좋은 이름 (로마자로 표기했을 때)이라 할수 없겠다. 미국인들에게 정말 큰 충격을 주는 이름은 속된 뜻이 담긴 이름들이다. 예를 들면 유명한 한국 정치가 X범석씨는 로마자로 X Bum Suck으로 표기한 것을 보았다고 자주 내 미국 친구들의 화제에 이 이름이 농담으로 오르는 것을 들었다. 이 이름을 보고 충격을 받지않은 미국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너무나 속된 말이라서 미국에서 이런 뜻의 말을 활자화하는 것이 한참동안 거의 타부였던

시절도 있었다. 이분이한 국가의 외교관으로 나와 명함을 돌릴때를 한번생각해보기 바란다. 한국 이름으로는 더 할수없이 점잖은 이름인데 말이다. 이런 망신은 바로 로마자의 시각적인 인상 때문이다. 한국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물론 외국인에게 발음하기 편리 하게 하기위한 것이 목적중의 하나 일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시 할 것이 있다. 즉 외국인에게 한국 이름을 발음하게 하는 목적보다 외국인에게 주는 인상을 더 중요시 해야 한다고 믿는다. 발음하기 좋도록 표기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이왕 외국 이름인데 발음은 조금 틀릴지라도 의신을 지키는 게 더 낫지않나 생각한다. 어떤분은 자기 이름을 미국인이 기억하기 쉬우라고 일부러 어떤 단어와 연결시키는 예도 있다. 예를 들면 영육을 Young Oak 이란 뜻의 이름이 자주 등장 했으므로 Young Oak 이라는 사람이 나라났을 때 원시적인 인디안 부족의 일원이 나라난듯한 연상을 자기도 모르게 할 것이다. 최근 20여년 사이에 큰 회사의 국제적인 교역이 활발해졌다. 그중에 미국의 (앵코)라는 석유 회사가 일본에 들어갔는데 (앵코)라는 발음은 일본 스텔로서 (고장난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앵코는 크게 망했다는 얘기다. 그 나라 말로 조사를 안한 탓이겠지만 이 사건때문에 국제적인 사업기관은 이 문제를 깨닫게 되었다. 그후부터 최근 20여년 동안 회사 이름은 물론 물품이름 짓는데 까지도 무슨 뜻이 없나 하고 세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유명한 예로는 Exxon 석유 회사를 들수 있다. 이 이름을 지을때 컴퓨터로 조사했는데 x가 두개 들어가는 나라말은 (말라)라는 작은 섬나라 뿐 인 것으로 나라나 그 섬에 가서 Exxon이란 발음에 어떤 뜻이 없는지 자세히 조사를 했다고 한다. 안전한 것은 그 나라에 아무뜻

도 없는 것이다. 이상적인 것은 이런 문제 에 대해서 잘 아는 외국인과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겠다. 이렇게 할수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메콘.라이샤역씨의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하면 안전할 확률이 제일 크다. 이 로마제도는 확실적이고 외국 단 어같은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미국인에게 친밀은 해도 우수한 느낌이나 속된 느낌을 주는 단어보다는 낫지않을까 생각한다. 이름을 로마자화 할때는 결국 외국인을 위한 것이니 무엇보다도 외국인의 감정을 고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알기로는 한국인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이름에 관심이 많은 민족이다. 이름 지을때 이름 짓는 사람을 일 부러 찾아가 많은 돈을 주고 짓거나 아니면 이름을 아예 바꾸는 분들도 가끔 있다. 단지 그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 도 그만큼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생각 나는 속담이 있다. (이름이 고아야 듣기도 곱다.)

중앙일보에서 발취  
끝.



각종 영문 및 한글 인쇄  
**富林印刷**  
(206) 433-8811

금년자료 미리 준비하고 83년은 세계화에 치중

# 82년 세금보고 지금부터 준비필요

연말이 가까와 지면서 개인이나 단체들은 올해의 마무리 작업에 분주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한해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 보고하기위해 이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다. 미리 준비하여 3년에는 새 계획에 열중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15일 인컴택스보고 마감일을 앞두고 이에 필요한 서류들은 크게 수입관계 서류들과 지출관계서류들로 나눌수 있다.

수입관계 서류중 중요한 것들로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개인의경우 W2폼을 준비해야 하며, 은행이자 수입해야 하며, 은행이자 수입인 경우 1099폼을 준비해야 한다. 이밖에 사업손익계산서, 부동산 매매서류(에스크로서류), 주식매매서류, Rental 수입및 지출서, 외자료, 커미션, 수입등에 관계된 서류들이 필요하다. 지출관계서류(세금공제)로 필요한것들은 의료비용수증, 재산세및 자동차면허세 납부영수증, 세일즈택스자료 크레딧카드사용영수증, 은행스테이트먼트페이비 시러비용, 교회헌금, 자선기관도네이션, 이사비용, 주택수리비용등에 관한 서류들이다. 개인택스보고의 경우는 본인직접할수도 있으나, 사업을하는 경우에는 전문회계사에 의뢰하는 것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현재 사업의 경우 E-estimate Tax 마감일이 내년 1월 15일이며 이날까지 못할경우 1월 30일까지 Income Tax File을 해야한다. 인컴택스보고는 2월초부터 여유를 갖고 시작하는것이 좋으며 마감에 임박해 4월초에나 가서

준비할 경우 서류준비과정에서 누락되는것이 있을때 이를 보충할시간이 모자라는것들을 들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있다.

**성업중인**

**PALACE RESTAURANT**

## 포홈식당

**씨애틀 최초의 수타국수집**

**각종 북경식 중화요리 일체**

**수타국수 전문**

영업시간: 오전11시30분~오후10시  
\*넓은 주차장\*  
(씨애틀 다운타운에서 남쪽으로 10분 거리)

**723-1958**

7119 Empire way So. Seattle 98118  
主人 김원규 白

## 원고모집

소설 ( 단, 장편 )

수필

생활수기 ( 이민생활의 체험담 )

시

시조

희곡및 시나리오

이상의 부분에 투고하여 주시면 본지 게재 및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할예정입니다 (보내 실곳)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 한인회소식투고환영

주변에 알려지지않은 미담 (불우이웃돕기)이나 고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본 한인회 편집부로 투고해 주시면 본지 한인회 소식란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 특히 이민생활에 필요한 생활 아이디어및 정보, 교양에 관한 사항을 정착하는 여러 고민들을 위해 투고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 한인회보 광고안내

매일 2,000부로 씨애틀 워싱턴주 거주고민들에게 배부되는 한인회보지는 바로 고민 자신들의 회보지이며 이국생활에서의 고민들의 동정을 알려주는 논이기도 합니다. 손수한 봉사단체인 한인회의 광고비로만 충당되는 한인회보는 여러분의 적극 참여없는 어려운일이라 생각됩니다.

전고민이 구독하는 이 회보지를 통한 광고효과 또한 상당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헌신적인 참여도 되고 경영하시는 사업을 위한 최대의 광고 효과도 얻고, 우리의 애속담처럼 이거야 말로 일거양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이시간에 연락주시면 바로 고민사회에 봉사하는 그결정이 거룩한 행동이 되심이라 단언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들은 25시 까지 라도 기다리겠습니다.

각종 영문 및 한글 인쇄

# 富林印刷

(206) 433-8811



**SONG'S 페인팅**



※ 무료견적  
※ 공보칠 전문

※ 내부 및 외부 기타 칠이라면  
저희를 찾아 주시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해 드립니다.  
전화 527 - 7680 546 - 1572

한인회보  
1982년 12월호 통권 제 호

비매품  
발행인 : 엄명보  
편집인 : 박용목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TEL ; ( 206 ) 682 - 4252

<p><b>공관및지사</b></p> <p>씨애틀·와싱턴주 한인회 SEATTLE·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206) 682·4252</p>	 <p>씨애틀총영사관 KOREAN CONSULATE GENERAL #1125 UA Bldg .6th Ave (206) 682.0132</p>
<p>대한무역진흥공사 씨애틀무역관 900-4th Ave #1245 Seattle WA. (206) 623·3588/9</p>	 <p>한국일보씨애틀지사 <b>THE HANKOOK ILBO</b> 7320-20St Ave N.E. Seattle WA. 98115 (206) 525·9222</p>
 <p><b>中央日報</b> (206) 838·3155 927·5915</p>	<p><b>한국외환은행</b> KOREA EXCHANGE BANK SEATTLE BRANCH 600 UNIVERSITY STREET SEATTLE, WASHINGTON 98101 (206) 622-7821</p>
 <p>美 洲 東 亞 日 報 社 <b>THE ORIENTAL DAILY NEWS</b> (206) 244~9930</p>	<p>株式會社 韓進 海運 <b>HANJIN CONTAINER LINES, LTD.</b> KOREAN FLAG SERVICE 157 YESLER WAY SEATTLE, WA 98104 ☎ (206) 447-9422</p>

● 고국의 소식과 흥취가 가득 담긴  
**週刊中央 무료배부!!**



주간中央  
본 주간중앙은 중앙일보  
애독자에 한하여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中央日報**  
광고 및 구독신청은

시애틀 ☎ (206) 838-3155  
타코마 ☎ (206) 927-5915

**한인업소 안내**

<p><b>여행사</b></p> <p>김여행사 KIM s TRAVEL SERVICE #619 Lloyd Bldg 603 Stewart St Seattle WA 98101 (206) 624·2227/8</p>	<p>동서여행사 EAST WEST TRAVEL SERVICE Securities Bldg #635 Seattle WA 98101 (206) 623·2157/8 367·1935</p>	<p>타코마 한국여행사 11222 Bridge port way . S.W. Tacoma. WA 98499 588-0333/7788 이주응</p>
<p>가나안 여행사 CANAAN TRAVEL SERVICE #107·409 Maynard Ave. So Seattle WA 98104 (206) 6246461</p>	<p>킹여행사 KING TRAVEL AGENCY 504 S. King St. Seattle. WA 98104 (206) 624·9844</p>	<p><b>식품점</b></p> <p>중앙식품 9641-15th Ave S.W. Seattle WA 98106 (206) 762·5620</p>
<p><b>KTB</b> KOREA TOURIST BUREAU Dana Plaza Sute #5 31260 Pacific Hwy. So. Federal Way WA 98003 Tacoma (206) 952·5595 Seattle (206) 941·8866</p>	<p>한국여행사 KOREA TRAVEL SERVICE 2636 2nd Ave Seattle WA 98121 (206) 623·9290</p>	<p>아줌마식품 AHJUMMA ORIENTAL FOOD 31260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206) 941-123</p>
<p>헨리장여행사 9002 12th Ave N.E. Seattle WA. 98115 (206) 523·7057/2781</p>	<p>태평양여행사 PACIFIC TRAVEL SERVICE 5649-17th Ave S.W Seattle WA 98106 (206) 767·7390</p>	<p>그랜드식품 GRAND FOODS 8512-20th NE Seattle WA 98115 (206) 525·8334</p>
<p>한인업소안내 광고 씨애틀한인회 전화 (206) 682~4252</p>		

# 한인업소 이용하여 한인사회 육성하자

<b>탐스종합도매상</b> 3306 So. 170th St Seattle (206)243-7040(타) 582-1158	<b>장미상회</b> 1414 So. 324th St. Federal Way WA. 98003 (206)941-8144	<b>사보이식당</b> 선지국 해장국 전문 622-7424
<b>제일식품</b> 21405 Hwy 99 #A Lynnwood WA 98036 (206)774-4103	<b>부한식품공장</b> 방앗간 마켓 각종떡 두부 참기름 10001 KLINE ST. S.W TACOMA, WA. 98499 TEL. (206) 588-7300	<b>한일각</b> Hanil Korean Restaurant 409 Maynard Ave. S., Seattle, WA 98104 (1st Fl. Bush Hotel in China Town) (206) 587-0464/0465
<b>서울식품</b> 6405 Steilacoom Blvd SW Tacoma (206)588-9222	<b>한미상회</b> ORIENTAL FOODS & GIFTS 9618 PACIFIC AVE. S. TACOMA, WA 98444 535-2423	<b>자동차수리</b> 101 바디샵 525-5778 미국차, 외국차, 바디 페인트 무료견적 All Insurance Work 10059 Aurora N Seattle
<b>동양식품</b> 11325 Roosevelt Way N.E. Seattle WA. 98125 (206)365-5540	<b>SEAHURST HANDY MART</b> 15219-21 St Ave S.W. Seattle, WA 98166 (206) 242~2050	<b>레이크우드 자동차 정비</b> ★튼업·부레이크 전문 ★최신장비 (SUN SCOPE) McChord 공군부대 입구 (EXXON) 588-3983
<b>한국식품</b> 우와지마앞 682-2992 514.6th Ave S. Seattle 98104	<b>식당</b> <b>왕궁식당</b> 시애틀 수타국수 전문, 중화요리 오전11시30분~오후10시까지, 7119 Empireway S. 723-1958	<b>올림픽 바디샵 (타코마)</b> 성실봉사, 무료견적, 무료토잉 ◆보험수리 ◆청구대행 4040-100th SW Tacoma 584-2865
<b>현대식품</b> 10402-16th Ave S.W. Seattle WA 98146 (206)762-4792	<b>산장</b> 중화 및 한식요리 연회석완비, 나이트클럽 10203 Sales Rd Tacoma 582-9889	<b>타코마 오리엔탈 바디샵</b> BODY & PAINT 등 일체 한국인 특별할인 보험수리전문 582-1364, 584-1938
<b>켄트상회</b> 23633-104th Ave S.E. Kent WA 98031 (206)852-8388	<b>귀빈원</b> 영업시간 아침 11시30분~밤10시 11101 Pacific Hwy SW 588-9262	<b>CHOI's Auto Service</b> 국내차중 포드, 닷지, 세보레 도요다 볼보, 닷선, 혼다만 취급. 달러 8년경험의 524-2960
<b>아로라식품점</b> 16300 Aurora Ave N. (206)542-9489/6577	<b>국일관</b> 한국식 중화요리 수타국수 각종연회석완비 영업시간 11:30am~10:30pm 12408 Pacific Hwy SW Tacoma 582-7720	<b>Greenlake Auto Electric</b> (자동차 전기전문 수리) 국내외차 스타터 및 올터네이터 각종라이트 브레이크 엔진튼업 아크웰딩 Emission 유명메이커배터리 취급. Control (개스배기량검사) 782-4695 6501 Aurora Ave. N. Seattle
<b>김치마켓</b> KIMCHEE MARKET 6400 So. Yakima Tacoma WA 98408 (206)475-6128	<b>한국관</b> ☎ 622-1936 212 4th Ave So. Seattle 98104	<b>Skips Body Shop 838-3869</b> 완벽한기술, 완전한수리 무료토잉, 인슈런스대리취급 교포들에게는 할인봉사 839-5193 24433 Pacific Hwy So. Kent
<b>오대양식품</b> 543 N.E. Northgate Way Seattle 363-6850, 365-9844	<b>장미원</b> 오후4시~새벽2시 금, 토는 새벽4시 8904 Aurora N Seattle 525-1335	

# 한인업소 이용하여 한인사회 육성하자

<b>회계사무소</b> <b>김종구 회계사무소</b> 공인세무사 장부정리, 개인 인감, 362-8370 신속 정확한 서비스 367-0655 절대 비밀보장, 재무 상담환영 13051 37th Ave. NE Seattle	<b>보험</b> <b>박유철 종합보험</b> 자동차, 화재, 상업 생명, 주택 241-2888(사무실) 362-9565(집)	<b>선물센터</b> <b>오로라선물센터</b> 14107 Aurora Ave. N. 362-8617 Seattle, WA 98133(집) 454-2087
<b>심상연 인컴 택스</b> 중소기업장부정리, 세무상담, 일반인컴택스 은행용자 상담, 퇴직연금상담, 공증업무취급 10307 Bridgeport Way Tacoma 474-1802 582-1644	<b>정문언 종합 보험</b> ★자동차 ★생명 ★주택 ★건강 ★사업 10059 Aurora N. Seattle 523-9111, 523-8944(집) 582-8989(타코마)	<b>미도파백화점</b> 런던포그 딜러쉽 고급화장품 비타민, 골프세트, 비데오, 칼라TV, 악세사리, 시계일절 테니스라켓 584-1991
<b>이규영 계리사</b> 컴퓨터로 장부정리 일반 인컴택스, 중소기업 장부정리, 퇴직연금상담, 세무상담 공증업무, 기밀절대보장 2809 4th Ave Seattle 623-4181~3	<b>에퀴터블 보험</b> 생명 및 건강보험 전문 588-3112(타코마) 624-8380(시애틀)	<b>타코마종합선물센터</b> 골프채, 테니스라켓, 전기제품 오메가시계, 화장품일절 11602 Pacific Hwy Tacoma Bus 581-1100, 582-6044 Res 581-0515(24시간)
<b>인쇄소</b> <b>쇼어라인 그래픽스</b> 3008 NE 127th St Lake City Way 와 127가 364-6632	<b>최영세 에퀴터블 보험</b> 생명·건강·자동차·주택 Bus: 624-8380 Res: 365-0085	<b>신신 선물센터 *시계 *보석</b> *런던포그 딜러쉽 획득 *화장품 일체 *골프세트 *비타민 582-2975 8518 So. Tacoma way
<b>뉴모드 인쇄소</b> 6433 So. Tacoma way Tacoma 475-7429	<b>이형석-보험</b> 자동차 전문 생명·교육성·장래성·사업·건강·주택 Res. 226-6151 Off. 285-3151	<b>테레비 꽃집</b> <b>한국 테레비 냉동</b> 회원비 없음 (전 멜로디 T.V.) 비데오 테이프 대여함. 31219 Pacific Hwy S. Federalway 98008 839-7155, 952-5140 타코마
<b>Express Copy &amp; Print</b> 각종인쇄, 명함, 청첩장, 회보 등등... 여권, 결혼사진 ■ 사진현상 ☎785 8415 Greenwood Ave N. Seattle 789-7272	<b>결혼 화장품</b> <b>ABE 결혼상담</b> ◆초재혼(비밀보장) ◆크리스찬환영 ◆영주권문제상담 (한국에지사설치)	<b>킹 TV (우와지마아 앞)</b> *쏘니 딜러쉽 회원 모집중 *한국에서 직수입한 MBC KBC 한국 비데오 ☎624-9815, 747-7234
<b>BRIM PRESS</b> (각종 한글 및 영문인쇄) <b>富林印刷</b> 450 S.W. 153rd SEATTLE, WA 98166 (206) 433-8811	<b>풀라 화장품</b> Director 전데레사 미용상담 전화환영 ☎743-7984	<b>PACIFIC 531-8408 이종만</b> <b>ROSE HOUSE</b> *퍼시픽 장미의집* 실내장식, 결혼, 개업, 파티, 장례, 모든 꽃화환 11812 Pacific Ave. Tacoma,
<b>하바하바사진관</b> 5610 So. Yakima Ave. Tacoma WA. 98408 (206)475-6226	<b>풀라화장품</b> Director mrs 박 배달가능 Lakecity 365-1230 *미용상담 환영	<b>스트디오 꽃집</b> 결혼약혼식꽃 실내용화초 각종축하용화분 장례식꽃 4222 E. Madison Seattle WA 98112 325-5032 367-1534
	<b>POLA 화장품</b> Director Hyuk Han 미용상담: 581-5151, 5152 세일스할분구함, 전화환영 964-5375	